韓國文學論叢 第16輯(1995. 12) pp. 31~56

中國 朝鮮族 說話의 口述傳統과 이데올로기 志向性

李 憲 洪*

차 례

Ⅰ. 들머리
Ⅱ. 설화 구술의 현장
1. 이주문화와 구술전통
2. 계급이념지향의 기능적 구술전통
Ⅲ. 설화 구조의 이데올로기 지향성
1. 자력해결의 서사구조
2. 극단적 대립관계의 설정
3. 대중친화적 흥미유발 장치
Ⅳ. 구술전통과 이데올로기의 상관성
1. 계급대립 설화의 경우
2. 송사설화의 경우
Ⅴ. 마무리

Ⅰ. 들머리

인간에게 있어 移住는 새로운 생존 공간 확보를 위한 탐색운동이다. 이러한 탐색운동에 따른 특정 지역의 선택과 그곳에의 정착은 투쟁과 함께 새로운 문화창출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일제 강점기에 집중적으로 행해진 우리 민족의 대이동 역시 개인의 생존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한편으로, 한반도에만 국한되었던 우리 민족문화의 활동 영역을 세계로 확대하는 직접적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 조선족이다.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중국 조선족은 현재 중국에서 '越境민족'·'변두리민족'·'移住민족'·'遷入민족'·'過境민족'이라 불리고 있음에서[1] 알 수 있듯, 移入民族으로서 주체민족인 漢族과 함께 中華人民共和國을 떠받치고 있는 55개 소수민족 중의 하나로 존재한다. 이들의 이주는 明末 淸初에서 비롯되어 19세기 중엽의 집단적 이주 단계를 거쳐 1875년 이후 淸 정부의 封禁令[2] 철폐조치, 그리고 일제의 조선강탈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가 채 200년도 되지 못한다.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족이 중국대륙의 대표적 소수민족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민족 특유의 기질, 민족자존의식과 함께 높은 문화역량이 저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문화는 한 사회집단이 지닌 특유한 문명현상의 총체로서, 그 사회집단의 일상적 제반 활동에 관여하는 관념과 가치체계를 그 핵심으로 한다. 이주민의 경우 낯선 환경으로의 이동은 곧 새로운 문화질서의 창조적 모색활동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닌 기존의 문화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부단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나름의 새로운 문화전통을 다듬어 갖추게 된다.

가난에서의 탈출, 국외에서의 독립운동, 국제간의 상거래, 선교·교육활동, 문학창작의 소재 및 공간확보 등으로 나타나듯 중국 조선족은 그 이주의 동기나 목적이 천차만별이다. 중국의 대다수 소수민족은 운명공동체로서의 역사를 상당기간 동안 함께 해온 토착민임에 반해 중국 조선족은 이미 근대적 문화민족으로서의 모습을 갖춘 조선민족의 일부가 이주하여 집단적으로 거주함으로써 형성된 소수민족이다. 따라서 문화면에 있어서도 그 첫 시작이 원시문화가 아닌 근대 여명기의 조선문화였다는 자부심은[3] 우린 민족의 전통문화를

1) 김경일, 중국조선족문화론, 료녕민족출판사, 심양, 1994, p. 2.

2) 1677년(康熙 16년)에 淸 정부에서 장백산과 압록강, 도문강 이북의 1,000여 리 되는 지역을 청조의 발상지로 삼아 封禁地區로 정함으로써 타 민족이 이주하여 개간하거나 蔘, 진주 등의 채집, 벌목과 사냥을 엄금하였던 것을 '封禁令'이라 한다. 이는 타민족 배타정책으로 1875년(光緖 1년), 봉천성을 시발로 1883년 완전히 폐지되었던 정책이다. 이에 대하여는 연변조선족략사 편찬조, 조선족략사(연변인민출판사, 논장, 1989. 10) pp. 2-7참조.

3) 이를 두고 중국조선족 문화를 '그 모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조선문화의 특성과 중국적인 특성이 결합된 이중적 성격의 문화'(정판룡, 「중국조선족 문화

바탕으로 새로운 자연환경은 물론 정치사회적 이념의 소용돌이에 그 나름으로 적응하면서 전통 지속과 변이의 양면성을 지닌 중국조선족 문화를 이룩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필자는 중국조선족의 구비전승 문화 중에서도 특히 구전설화를 이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논지전개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먼저, 중국 조선족 설화의 구술현장을 중심으로 그 동기와 목적을 살필 것이다. 다음으로 작품에 내포된 이데올로기 지향적 성격을 텍스트의 구조적 특징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조선족 설화와 우리 본토 설화와의 상관성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Ⅱ. 설화 구술의 현장

말은 인간의 상호협동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입말과 글말의 두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말은 의사전달 및 소통 수단으로서의 일차적 기능과 함께 생각을 좌우하는 규범으로서의 이차적 기능을 아울러 지니기도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입말은 인간 활동의 일차적 현장 그 자체와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왕성하고도 활발한 동시적 소통행위의 수단이 된다. 따라서 문자문화에 익숙한 사람들과는 달리 구술문화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은 사고를 표현하는 단순한 기호로서보다 인간적 활동 그 자체의 양식으로 작용한다.[4] 입말의 문학인 구술문학에 이같은 모습이 보다 풍부하게 반영될 것임은 물론이다.

중국 조선족 문학에도 기록문학과는 다른 말의 문학 곧 구비문학이 존재한다. 구비문학은 그 담당층이 민중이기에 형식, 사상, 감정, 지향의지 등이 단순 평이함은 물론 생활현실의 발랄성이 그대로 부각되는 등의 특징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특히 설화는 그 자료의 질량적 다양성으로 인해 구비문학을 대

의 성격 문제」, 중국조선족 문화연구, 연변대학출판사, 1993, p. 4)라고 규정짓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 민족문화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예가 된다.

4) W. J. Ong, Orality & Literacy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 · 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1995, p. 13

표할 만한 것이기에 그 구술전통 속에는 우리 조선족의 삶과 의식이 잘 반영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1. 이주문화와 구술전통

중국 조선족 설화의 구술전통이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바탕에는 그들 특유의 이주문화가 자리잡고 있었으니, 우리는 이를 몇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同鄕人을 중심으로 한 집단 거주지의 선택과 함께 그들이 공유하는 望鄕의식이다.

이주민들이 낯선 이역 땅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은 조국을 버리고 타국으로 떠나야만 했던 그 암담함보다 더 심각한 고통으로 다가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자기들보다 앞서 정착한 동포들, 특히 동향인을 찾아 거주지를 선택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중국 조선족의 거주지는 주로 西間島(백두산 서남과 압록강 대안의 남만주)와 北間島(서간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이주민들은 주로 출신 지역별로 촌락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날 조선족 집거지의 일부 마을은 그 이름만으로도 대강의 연고지를 짐작할 수 있다.[5] 동향인을 중심으로 한 집거지의 형성으로 인하여 이주민들은 그들 공통의 친밀감·애향심 등으로 결속되면서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국의 향토에서부터 주고 받으며 즐겨오던 민요나 전설, 민담 등을 이역만리 타향에서 함께 모여 구술함

5) 길림성 안도현의 경우에는 '강원툰', '경남촌', '전북촌' 등으로 조선의 道를 상징하는 마을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 외에 마을 이름만으로는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없으나 유하현 강가점 조선족 자치향은 경기도 마을로, 길림성 도문시는 충청도 마을, 길림성의 구태시와 영길현은 경상도와 함경도의 혼합형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족 마을지명은 주로 위치·숫자·지형·지면구성물질과 광석·水門·기후·식물·동물·민족의 염원·문화 등과 관련되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심혜숙, 중국 조선족 취락지명과 인구분포(연변대학출판사, 서울대 출판부, 1994, pp. 66-204)와 최인학, 「중국 조선족의 민속과 변이」(국어교육연구 7집, 인하대 국어교육과, 1995. PP. 381-383) 및 김경일, 앞의 책, p. 33을 참조.

으로써 이들 이주민들은 향수를 달래는가 하면 나아가서는 자기네들끼리의 동질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로 삼기도 했던 것이다. 현전하는 조선족 구비문학 중 지역전설과 동식물에 얽힌 전설이 특별히 발전된 분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6] 이를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이들 전설은 고유한 향토성을 무시하고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빈번한 이주를 통한 구술 내용의 상호교류와 함께 改變 및 創作 가능성이다.

설화의 변이요인은 ① 구술자의 정서적·심리적 조건, ② 사회문화적 조건, ③ 자연환경의 변화, ④ 민족 공동의식의 변화, ⑤ 話者·聽者의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7] 중국 조선족의 이주는 어떤 경우이든 어느 특정 지역에의 완전한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새로운 지역을 향한 再移住의 역사는 끊임없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 조선족 이민실록』에 등장하는 60여 명의 대표적인 구술자들은 대부분 10번 이상의 재이주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8]고 한다.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주로 인한 설화의 변이요인은 절대적이다. 우선 자연환경, 사회 문화적 조건의 변화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구술자의 심리·정서적 조건 변화와 함께 이는 곧바로 화자·청자의 변화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말미암아 중국 조선족 설화는 이야기 단위별 구술 내용의 상호교환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설화 모티프 상호간의 혼융과 함께 첨삭 등의 개변이 이루어지고, 마침내는 새로운 설화의 창작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9]

이런 운동과정을 겪으면서 중국 조선족의 설화는 그 나름의 모습을 가꾸어 왔다. 백두산 설화, 용정의 전설 등에 보이는 민족의식, 지배-피지배 계급대립 설화의 이데올로기 지향적 개변, 항일 설화의 강렬한 투쟁성 등은 바로 이

---

6) 김동훈, 「조선족 구비문학 개관」, 조선족 문학연구(임범송·권철 주필,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1989), p. 162 참조.
7) 최운식,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1991. pp. 49-52
8) 김경일, 앞의 책, p. 34.
9) 정판룡은 앞의 논문(p. 14)에서 조선족의 전설이 ① 조선반도에서 가져 온 것으로 지명·인명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상 그대로인 것, ② 순전히 조선족이 창작한 것, ③ 중국 전설 가운데에 있는 고구려·발해 때의 전설이 중국 조선족 전설로 된 것 등 세가지 부류로 나뉘어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런 운동과정을 통해 형성된 중국 조선족 설화의 독자적 특징들이라 이를 만한 것이다.

셋째, 강한 뿌리의식과 이야기꾼의 우대경향이다.

중국 조선족의 절대다수는 일제의 잔혹한 압박과 착취 밑에서 허덕이다 생활의 출구를 찾아 본의 아니게 이주한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생활방식이나 의식의 밑바탕에는 조선의 고유 문화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렬하였다. 논밭을 일구어 생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시작하자 그들이 가장 먼저 서둔 것은 바로 후세 교육이었다. 그 내용은 『千字文』·『童蒙先習』·『四書五經』 등 유교의 교리에 대한 교육의 시행이었으며 이와 함께 충·효·예 등의 유교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전통도 함께 마련하였다.[10] 이같은 민족 문화전통의 계승의식과 그 실천적 학습과정으로서의 왕성한 교육열 때문에 중국 조선족은 중국에 거주하는 55개 소수민족 중 가장 먼저 9년제 의무교육을 보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족교육의 문화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강한 뿌리의식은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현장에도 왕성하게 파급되고 있었다. 소위 '이야기꾼'으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우대경향은 물론, 그들의 활동기회를 적극 마련하는 정책 등은 바로 그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이야기꾼을 중국에서는 '故事講述者'라 부르는데 그 능력에 따라 '故事能手'(수십 편을 구술할 수 있는 이) 또는 '民間故事家'(100편 이상을 구연할 수 있는 이)라 구분하여 그 전문가적 단계를 설정할 정도로 이들에 대한 배려가 각별하다. 특히 '民間故事家'의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그의 구술을 모아 개인 민담집을 간행할 정도로 사회적 경의가 실로 대단하다.

중국 조선족 중에는 민간고사가가 많다. 그 대표적 인물이 황구연, 차병걸, 김덕순 등이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직접 구술한 개인 설화집을 남길 정도로 이야기꾼으로서의 능력이 탁월하다.

『차병걸 옛이야기집 팔선녀』(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7)의 주인공 차병걸의 경우 1년에 걸쳐 설화 420편, 민요 300편, 속담과 수수께끼 100개, 판소리

10) 허명철, 「중국조선족 문화에 대한 반성과 재건」, 당대 중국조선족 연구, 집문당, 1995, p. 141

10편 등을 구연했다고 한다.[11] 황구연의 능력도 이에 못지 않다. 그는 자신의 구연만으로도 『천생배필』, 『파경노』 두권의 설화집을 남기고 있다. 그의 설화 구술 경력은 30년에 이르는데, 일주일에 100화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고 1983년 이후부터 530화의 기록을 남겼다.[12]

김덕순은 중국 최초의 개인 민담집인 『김덕순 고사집』(상해문예출판사, 1983)의 주인공이다. 1900년 경북의 한 천민 가정에서 태어나 13세에 민며느리로 출가, 30세에 이주해 중국 지주 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다. 『김덕순 고사집』의 편찬자 裵永鎭의 회견기에 의하면 그녀의 구술내용은 청자의 性과 연령 또는 신분에 따라 구분이 되었고, 특히 '가난뱅이가 거지가 된 이야기'를 즐겼다고 한다.[13]

이로 미루어 볼 때, 설화 구술자는 청자의 성과 연령, 신분 및 구술자 자신의 기호에 따라 구술하는 설화의 내용을 조금씩 달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설화는 결코 과거의 유산으로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삶의 내용을 더욱 살찌게 하면서 그 나름의 교육적 가치도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설화 구술자의 이야기가 이주민들의 사랑방이나 작은 모임에서 구술되는 기회가 잦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서적·문화적 공감대의 형성은 바로 민족적 자긍심과 뿌리의식의 고취로 직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중국조선족에게 있어서 설화의 구술전통은 그들 특유의 이주문화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 계급이념 지향의 기능적 구술전통

중국 조선족 설화의 구술전통은 그들의 이주문화 곧 거주환경에서 비롯된 자연발생적 문화행사의 하나로 정착된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다분히 의도성

11) 최인학, 앞의 논문, p. 384.
12) 소재영, 「설화의 양상과 특징」, 연변지역 조선족 문학 연구 (숭실대 출판부, 1992), pp. 155-160을 참조.
13) 이에 대해서는 최인학, 백두산 설화 (밀알, 1994) pp. 22-23과 리창인, 「민담전승인에 대하여」(조선민속연구 제1권, 연변대학 출판사, 1991) pp. 193-200을 참조.

을 지니고 그 기능적 측면을 특별히 강조한 구술전통의 경우도 아울러 있었으니, 그 대표적인 例로 口演藝術團의 조직과 조선족 구비문학의 채집·정리 및 이를 통한 共産主義 이데올로기의 선양활동을 들 수 있다.

중국 조선족은 자치주를 형성하며 그들끼리 더불어 사는 정치 사회적 지위를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소속된 여러 소수민족의 하나로서 각자가 누릴 수 있는 제한된 범위 내의 독립성에 다름 아니었다. 사정이 이러한지라 중국 조선족의 일상생활은 물론 그들의 구술전통 역시 중국 공산주의 정부당국이 설정한 계급대립적 통치이데올로기의 강한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의 주도로 구성된 구술의 현장에서는 맑스주의 이론을 지침으로 삼고 노동계급적 입장에서 역사주의적 원칙과 결합하여 진보적이고 민중적인 것만을 계승시킬 의무가 있었다.[14] 이의 제도화된 조직이 바로 여러 지역에서 형성된 구연예술단이다.

조선족 구연예술단의 등장을 촉발한 것은 1939년 만담가 신불출의 조선족 집단거주지 순회공연이었다. 신불출의 공연은 본토 연예집단의 순회공연이란 점 외에, 私的이고 자연 발생적 자리로 이루어지던 구술행위가 인위적·公的인 공간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경험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한 바 있다.[15]

이로부터 구술전통의 대중선전 효과를 중시한 인사들에 의하여 '동북민족사무위원회 문예공작단'·'목단강조선인 문예공작단'·'연변문예공작단' 등 많은 문예단체가 설립되고 이들에 의해 다양한 모습의 구연예술이 이데올로기 선양에 적합한 모습으로 개변 창작되기도 했다. 이 중 전래형식과는 다른 새로운

14) 김병민은 1993년 연변대학 제1차 중국조선족문화학술토론회의 「개막사」에서 '중국 조선족 문화는 중국 조선족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의 총화로서 문화연구는 반드시 맑스주의 이론을 지침으로 삼고 당대 선진적인 문화학자들이 얻은 성과와 방법론을 적극 포섭하여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중국 조선족 문화연구, 연변대학출판사, pp. 3-5), 이동원은 보다 노골적으로 구전문학 유산을 수집 정리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 교양에 이롭고 혁명의 이론에 맞는 것만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도적이고 변별적인 문학전승론을 펼치고 있다. (조선구전문학,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2. p. 14)

15) 최수봉, 「구연사」, 예술사 제5편(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민족출판사, 1994), p. 698

형식의 구연예술인 <三老人>의 탄생은 공산주의 이념의 효과적인 선전도구로서 설화구술 전통의 활용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三老人>은 1950년 1월 22일, '품앗이조'와 '호조조'를 결성함으로써 농업생산을 향상하라는 모택동의 지침을 받들어 만들어진 구연예술이다. 이는 연변문예공작단의 예술인 최수봉·허창석·원주삼에 의해 화룡현 룡수향 신민촌 정부 사무실에서 공적인 의도에 따라 공연된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계몽을 위한 최초의 구연예술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호조조의 조직을 반대하는 노인(허창석 扮)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유식한 노인(원주삼 扮), 그리고 중간 입장에 선 노인(최수봉 扮) 등이 등장하여 설전을 벌이다가 마침내는 黨의 이념에 따라 모두 합심하여 농사를 지을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 구연행위가 각색의 과정을 거쳐 무려 4,700여 차례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하니[16] 공산 이데올로기의 선전계몽에 끼친 그 지대한 공헌을 짐작할 수 있다.

구연예술단의 활약 외에 조선족 구비문학에 대한 채집·정리 역시 설화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1952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성립된 후 연변주 서기 주덕해가 민족구전문예를 중시하고 이를 보존 장려하려는 의도에서 작품 채집을 공개 거론한 이후, 100여 명의 노인들이 모인 '조선족 이야기대회'(1956. 12, 훈춘)가 개최된다. 이어서 1961년에는 주덕해가 '소방대가 화재난 곳으로 달려가는 속도로 구비문학예술을 구해내자'라는 구호를 제기함과 동시에 黨과 전체 朝鮮族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채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 연변,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등지에서 발굴한 작품 수만도 무려 2,400여 편에 이르게 된다.[17]

문화혁명기에는 이같은 운동이 자민족에 대한 집착으로 중국의 단합을 저해하고 수정주의에 투항하는 반혁명 여론을 퍼뜨린다는 죄목으로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잠시 동안의 탄압에 그치고 구비문학의 채집과 정리는 70년대 이후부터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는 民族의 正體性을 확인하

16) 최수봉, 앞의 책, p. 711
17) 최삼룡, 「중국 조선족 백두산 설화의 의미」, 백두산 설화연구(정재호 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2. 9) pp. 138-140

고 민족의식을 앙양한다는 순수한 의도 외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알맞은 것만이 선택됨을 고려하면 이 역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선양에 기여하는 기능적 측면이 강조된 결과라 하겠다.

<삼로인> 등의 구연작품과 의도적인 구비문학의 채집 외에 이후 연변 구연가협회(1978)의 등장과 텔레비젼 방송국의 구연예술 경연대회 등의 개최는 계급이념을 지향하는 설화의 기능적 의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Ⅲ. 설화 구조의 이데올로기 지향성

중국 조선족에 의해 향유되는 설화의 종류는 국내의 설화 종류만큼 다양하다. 김선풍의 『조선족 구비문학 총서』[18]에는 짤막한 형태의 동화로부터 소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논리적인 서사구조를 보이는 장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설화가 영인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주로 선악의 대립이 계급의 대립과 연계되어 나타나거나, 항일·반외세운동이

18) 이 책은 김선풍이 중국 현지에서 간행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民俗苑에서 91년에 간행한 것이다. 이 총서는 총 21권인데 설화는 1권에서 16권까지이고, 민요가 17권에서 20권, 속담 기타 구비문학 자료가 21권이다. 이하의 자료에서는 이 총서의 권수와 면수를 밝히기로 한다. 이 총서에 수록된 중국 현지 간행의 작품집은 설화만도 31권이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선풍의 해제를 참조.

이 총서 이외에 필자가 구한 자료는 중국 현지 간행기록을 그대로 밝혀 적는다. 이들 자료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들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신 연변대학의 김동훈 교수, 김철성 연구원, 그리고 숭실대학교의 소재영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조선족전설집(민족출판사, 북경, 1991), ⓑ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 8·9 (민족출판사, 북경, 1993), ⓒ 인삼처녀(연변인민출판사, 연길, 1962), ⓓ 천지의 맑은 물(연변인민출판사, 연변, 1962), ⓔ 눈보라치는 밀영(연변인민출판사, 연변, 1981), ⓕ 항일전설설화집(연변인민출판사, 연변, 1992), ⓖ 용정전설(연변인민출판사, 연변, 1993), ⓗ 속담이야기 100켤레(연변인민출판사, 연변, 1994), ⓘ 천년 묵은 호랑이(연변인민출판사, 연변, 1994), ⓙ 금망아지 (연변인민출판사, 연변, 1994), ⓚ 금강산 호랑이(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목단강, 1992), ⓛ 조선옛말 365켤레 2·3(료녕인민출판사, 심양, 1985), ⓜ 삼돌이와 호랑이(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목단강, 1985), ⓝ 해와 달(연변인민출판사, 연변, 1992), ⓞ 령리한 꾀돌이(연변인민출판사, 연변, 1992)

민족자존의식으로 대치되어 표출된 것, 그리고 노동가치의 선양을 드러내거나, 종교비판과 민중고난 해결을 드러낸 것 등이 구연되고 있다.

설화 내용상의 이같은 특징은 日帝와 기존의 지배계층에 대한 이주민들의 반항적 정서에 합치되는 민족 전래의 설화를 채용하는 한편으로, 중국 공산당의 이념에 맞게 계급의식도 아울러 표출해야 하는 중국 조선족 문화의 이중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설화는 일정한 구조를 지닌 꾸며낸 이야기이다.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온 설화는 삶의 오랜 체험에서 얻어진 다양한 인식 내용을 나름의 구조 속에 형상화한 인간 정신활동의 소산인 셈이다. 각박한 개척생활 속에서도 많은 종류의 설화를 구술전통으로 이어 올 수 있었던 요인은 중국 조선족 설화가 그 나름의 구술원리를 자기 스스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술전통의 근간에는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쉽게 떠올리고 기억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고정된 구조의 원칙, 곧 구술원리가 존재한다.[19] 중국 조선족 설화에 보이는 구술원리를 필자는 크게 속담과 수수께끼의 활용을 통한 자력해결의 서사구조, 극단적 대립관계의 설정과 결말의 과격성 그리고 대중친화적 흥미 유발장치 등으로 파악 기술코자 한다.

1. 자력해결의 서사구조

중국 조선족 설화가 지닌 특징의 하나로 속담과 수수께끼 등의 활용을 통한 사건전개 방식을 들 수 있다. 이는 초월적 존재의 개입에 의한 사건해결보다는 등장인물의 주체적 의지에 의한 자력해결 방식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서사구조를 의미한다.

속담은 구비문학의 영역에서 비교적 짧은 언술형태에 해당한다. 형태가 단순할 뿐 아니라 내용도 일상적 경험에서 우러 나온 것이기에 속담의 운명은 전적으로 향유계층이 지닌 관습과 문화의 배경에 좌우된다. 속담은 인간의 삶 전반을 내용으로 하고 형태상으로는 단형과 장형의 두 가지가 있는데, 2음보

19) Herbert H. Clark & Eve V. Clark, 이기동 외 공역, 언어와 심리, 탑출판사, 1988. p. 92

와 4음보 위주의 율격 및 반복과 대구를 표현기교상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 중 민요에서 볼 수 있는 2-4음보의 보편적인 율격과 평형감각을 중시하는 대구의 사용은 민중의 보편적 정서환기는 물론, 기억을 용이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중국 조선족 설화의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속담의 활용은 바로 이같은 향유층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라 하겠다.

박창묵이 정리한 <그림 한 장>(2-1, 195-205)[20]의 경우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꽃이 핀다'는 속담이 보인다. 20살의 고아 총각이 산중에서 인사불성이 된 노인을 정성껏 보살핀 선행에 대한 話者의 直接言述이다. 여기에는 속담이 들어 있지 않더라도 이야기 전개에 직접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인공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직접 언술로 대변된 민중의 인과응보적 평가를 담음으로써 미래예시적 기능을 보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건의 귀추에 대한 당위성을 현실 논리로 인증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무당의 귀신놀음〉(9-2, 231-225)은 여색을 밝히던 신판서에게 정조를 앗긴 무당의 딸이 펼치는 언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다. 그녀는 신판서 아비의 영혼을 부르는 굿판에 어미 대신 나아가 공수로써 신판서에게 몰매를 내리는 등 한풀이를 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곡식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속담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사용된 속담을 순차적으로 살피면 ⓐ '닭대신 꿩', ⓑ '술을 지고는 못가도 마시고는 간다', ⓒ '바람따라 돛 단다', ⓓ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등이다. ⓐ는 어미를 대신해 굿판에 나서겠다고 하는 무당딸을 보고 있는 신선달의 마음을, ⓑ는 주안상을 차려오는 무당딸을 통해 신선달의 주량을 드러내는 것이다. ⓒ는 교태를 부리면서도 선뜻 몸을 내주지는 않는 무당딸을 구슬리는 신선달의 언술이며, ⓓ는 무당딸을 만난 신판서의 놀라움을 담은 언술이다.

<그림 한 장>에 보이던 미래예시적 기능과는 달리 <무당의 귀신놀음>은 각각의 속담이 설화 자체의 이야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로써

20) 이는 김선풍 편 『조선족 구비문학 총서』에서 가려 뽑은 것으로 괄호 속의 '2-1'은 총서 2집 1권을, '195-205'는 설화가 기록된 페이지를 나타낸다.

<무당의 귀신놀음>이야기는 그 환상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자력해결의 서사적 구조를 통해 그 나름의 리얼리티를 구현한다 하겠다.[21]

이처럼 속담은 중국 조선족 설화에서 민중의 인과응보적 평가를 담는 도구로서의 기능과 함께 구술상황에 효과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현실인식을 강하게 표출하는 기능 또한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수께끼는 속담과는 달리 중국 조선족 설화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언술이다.[22] 화자가 직접적으로 민중의 보편적인 기대와 평가를 대변하던 속담과는 달리 수수께끼는 일방적인 참여가 아니라 비밀의 해결을 주축으로 해서 질문자와 답변자 쌍방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언어적·지적·감정적 상호교섭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즐기는 일종의 유희이다. 그러므로 수수께끼는 생성 집단의 사유방식 등 일련의 정신세계를 더듬게 해 주는 하나의 거울로 기능한다. 아울러 상황설정과 문제 해결이 서사진행의 정점이 되고, 긍정적 주인공의 운명을 결정짓는 계기로 작용한다는[23] 점에서 수수께끼는 서사문학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기도 한다.

중국 조선족 설화에 나타난 수수께끼는 短句·短文型의 문답이 아니라 長型·長文의 說話型 問答이며 그 문답은 보통 3번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질문자는 대부분이 惡한 의도를 지닌 인물이고, 답변자는 善한 인물로 대체로 답변자의 기지와 재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질문자는 自繩自縛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결말을 보인다.

<善德王 知幾三事>[24]의 '향기없는 모란꽃'과 '玉門池 女根谷'에서 보이듯

---

21) 이 외에도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매산>, 8, 65-77), '공짜라면 양잿물도 밀굽을 낸다.'·'먹은 소 똥 눈다.'·'벼른 도끼 무디다.'·'가자 하는데 순풍 분다.'·'술을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벽동군수>, 9-2, 21-24), '닭 쫓던 개 담벽 쳐다보다.'(<금을 탐내던 부자>, 3, 353-357) 등이 있다.

22) 설화 속에서 수수께끼가 사건해결의 주요 실마리가 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고약한 사또>(7-1, 142-147)·<돌이>(5-2, 368-376)·<피맑은 돌이>(7-2, 36-47)·<신관 사또의 버릇을 뗀 소년>(9-2, 88-95)·<선량한 바위>(8, 326-332)·<니마가 집으로 돌아 왔다>(12-1, 6-10)

23) 이에 대하여는 김열규, 「言語遊合談의 構造」(민담학개론, 일조각, 1982, pp. 213-230)와 이헌홍, 「조선조 訟事小說 연구」(문학박사학위논문, 부산대, 1987, pp. 88-94)를 참조.

24) 三國遺事, 卷一, 紀異·第一.

설화형 문답의 특징은 논리적 사고와 내포의미의 심연성이다. 이 말은 비슷한 상황만 주어진다면 어디든 활용할 수 있는 수수께끼의 독자성이 유지된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구술행위에 참여하는 구연자의 경우 3단계로 되어 있는 수수께끼만 외우면 되는데, 3단계의 수수께끼에 있어서도 3가지 질문의 연계성이 없어 단편적인 수수께끼를 여러 개만 외우고 있으면 될 정도다.[25]

결국, 중국조선족 설화에 있어서의 수수께끼의 활용은 긍정적 주인공의 악에 대한 징치를 위한 자력 해결능력 확보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수께끼의 활용을 통해 그들은 구술자의 지혜나 지식수준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로 삼고 있음을 알게 된다.

2. 극단적 대립관계의 설정

구술문화 특유의 기억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기억의 대상이 영웅적인 인물이거나, 아니면 善惡을 대표하는 대립적 인물이 설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경우이다. 이때 이들 인물은 대체로 기억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에 박은 인물이 되기 쉽다.[26]

중국 조선족 설화 역시 어사 박문수, 봉이 김선달 등 조선 본토에서도 인지도가 높아 널리 알려진 인물이거나 아니면 순박한 하층민을 긍정적 인물로, 부자, 사또 등 爲政者를 비롯한 權力型 支配集團을 부정적 인물로 전형화시키고 있다.

상반된 인물을 형상화하는 데에는 관용적 표현-병렬적인 단어나 구·절 그리고 형용구와 같은 정형구-이 두드러진다. 善人의 경우 그냥 노총각이 아니라 거의 '마음씨 착하고 일손이 부지런한 한 총각'[27]이고, '마음씨가 비단고름

25) <부자놈을 골탕먹인 젊은 총각>(6-1, 144-147)에 활용된 수수께끼는 욕심쟁이 부자가 머슴들의 노임을 주지 않으려고 ① 큰 독을 그 절반되는 독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 ② 부엌안에 하루 종일 햇볕이 들게 하는 법, ③ 부자의 머리무게를 한푼 틀림없이 알아 맞추는 방법 등을 물은 것인데, 각 항목간의 필연적 논리적 연계성은 없다.

26) Walter J. Ong, 앞의 책, pp. 110-111

27) <말하는 남생이 이야기>, 2-1, 12

처럼 고운 데다 쉼없이 흐르는 물처럼 부지런해서 얼굴 한 번 붉히지 않고 늘 아들 삼형제를 거느리고 별을 지고 밭에 나갔다가는 달을 이고 집에 돌아오는'가난한 농군[28]이다.

반대로 악인의 경우도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워낙 잔나비 상판인데다가 그 마음씨 고약하고 심술이 많고 탐욕이 많아 공것이라면 양잿물이라도 먹으려 드는' 부자이고[29], '고뿔도 남을 안 주는 그런 구두쇠인가 하면 또 이득이 있을 듯만 하면 대가리를 뾰쪽하게 깎아서라도 뚫고 들어가 주둥이를 돈구멍 속에 틀어박지 못해 안타까워 하는' 지주[30]이다.

청자가 화자의 인물 형상화에 조금만 유의하면 누가 선악의 인물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게 된다. 결국 구연자의 경우는 선인과 악인을 형상화하기 적합한 관용구만 몇 가지 확보를 해 두면 구술에 큰 장애를 받지 않는다.

구술의 편리뿐만 아니라 극단적 대립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인물들끼리의 갈등을 첨예하게 부각시키기도 한다. 갈등의 부각은 주제의 심각성과 직결되며 나아가서는 이데올로기 지향성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중국 조선족 설화에 보이는 이같은 극단적 대립관계의 설정은 결말의 과격성에서 그 절정을 보이게 된다.

일반적인 설화와는 달리 중국 조선족에 향유되고 있는 설화는 과격한 결말이 특징이다. 결말의 이같은 과격성은 말로써 놀려대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구체화 된다. 배비장전의 근원설화로 일컬어지고 있는 소위 '米槪說話'는 조선후기의 야담에 수록되고 있는 작품이다. 야담에서는 위선양반이 기생에게 빠져들어 알몸으로 대중 앞에서 망신당하는 모습의 결말을 보인다. 이에 반해, 중국 조선족 설화에서는 <망신당한 사또>라는 제목하에 사또의 부도덕성이 강조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변이되는가 하면, 결말에서도 체절당한 양반이 군중에 의해 몰매를 얻어맞고 행방불명이 되는 방식의 과격한 모습을

28) <금덩이와 돌담>, 2-1, 139.
29) <말하는 남생이 이야기>, 2-1, 14-15
30) <금망아지와 불룡적삼>, 12-1, 103. 특히 '고뿔도 남을 안 주는 구두쇠'라는 표현은 중국조선족 설화 전반에서 수전노를 형상화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고뿔(감기)'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 조선족이 처한 환경적 조건-건조하고 추운 지역-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보인다.

<총명한돌이>(5-2, 104-112)에서는 적대자의 아비 곱사등이를 단순히 놀리거나 속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에 묶어 둠으로써 승냥이의 밥이 되게 한다. 특히 '사흘 후였다. 승냥이가 어느 새 곱사등이의 오장을 다 파먹고, 또 까마귀들이 달려 들어 그의 눈을 파먹고 있었다.'라고 묘사한 구술자의 행위묘사는 잔혹하리만큼 충격적이다. 이는 중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백성을 괴롭히는 서리의 다리를 자르고 개다리를 붙이거나[31], 욕심많은 부자를 구렁이가 직접 나와 물어뜯으며[32], 일가족 모두를 불에 태워 죽이는[33] 등의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결말의 과격성은 중국 조선족 설화에 있어서 '禁忌'가 드물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부정적인 앞날을 뻔히 예견하면서 구술되는 교묘한 수법으로서의 '금기'[34]는 여유없이 눈앞의 현실과 싸워야만 했던 중국 조선족에겐 그다지 호감이 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 설화에 나타나는 결말의 과격성은 관념적 서술만으로 그치는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 구체적 현실의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적극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3. 대중친화적 흥미유발 장치

중국 조선족 설화는 그 속에 삽입가요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 많다. 설화에서의 삽입가요는 조선 본토의 설화에도 가끔 드러나지만 중국 조선족 설화의 경우에는 더욱 현저한 편이다. 삽입가요는 설화구술의 장식적 요소로 기능함으로써 서사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와 함께[35], 이와는 달리 서

31) <개다리>, 5-2, 294-302.
32) <항아리와 양반>(7-1, 169-172), <복구렝이>(7-1, 245-248)
33) <황금몽>(9-1, 91-95), <불에 타 죽은 부자>(9-2, 241-246)
34) '禁忌'는 대체로 '~하면 안된다. 만약 ~한다면 반드시 ~가 될 것이다'의 구조로 제시되는데, '금기'가 등장하는 설화는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善惡과 良心, 인간의 意志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금기는 결과의 필연성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 청자들에게는 필요 이상의 군더더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양자 모두가 구술현장의 분위기를 보다 부드럽고 친숙하게 함으로써 화자와 청자간의 거리를 단축시켜 감정의 공감대를 확장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여기서는 후자의 경우를 예로 하여 그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화의 형식을 띤 <개미와 매미>(2-1, 381-384) 이야기는 개미와 매미의 대화 내용이 아예 노래로 되어 있고, <며느리 덕에 양반행세를 한 최서방>(3, 282) 이야기의 삽입가요인 '개타령'은 백정의 아들을 장원급제시켜 정승의 사위가 되게 하는 기능과 함께 사돈집 연회에서 삽입가요 '개타령' 때문에 백정 자신이 양반들로부터 무안을 당하는 요인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기도 한다.

삽입가요가 서사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작품은 이밖에도 ⓐ <말하는 남생이 이야기>(2-1, 18), ⓑ <총명한 돌이>(5-2, 110), ⓒ <복수>(10-3, 252), ⓓ <승천한 옥이>(13-1, 103), ⓔ <종다리>(중국조선민족 문학선집 8, 167-168), ⓕ <나비 한 쌍>(중국조선민족 문학선집 8, 337) 등이 있다.

ⓐ는 심술꾸러기 박첨지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남생이를 묻은 무덤에서 나무 한그루가 솟아나자 노총각이 마치 남생이를 다시 만난 듯한 기쁜 마음으로 그를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이다. 이 노래에는 '말하는 남생이'의 분신으로 생겨난 나무를 아끼는 노총각의 심정이 절실히 배어 있다. 이 노래로 인해 나무에서 금열매가 떨어지고 다시 이야기는 박첨지의 몰락을 재촉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는 욕심쟁이 지주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돌이가 지주의 애비를 유혹하여 자신의 위기를 모면키 위한 계략으로 부른 노래이다. 이 노래에 유혹당한 지주 애비는 돌이 대신 나무에 묶여 맹수의 밥으로 먹히는 신세가 된다.

---

35) 이 유형에 드는 설화로는 ① <머슴과 보물>(7-1, 174), ② <박의협>(9-1, 6), ③ <사랑산>(9-1, 154), ④ <백일홍>(2-2, 43) 등인데 이들 설화의 삽입가요는 漢詩나 民謠의 형식을 띠되, 신세한탄 등 이야기 전개상 빼버려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들이다. 한시의 경우 새로운 창작이기보다 유명 시구의 조합이 대부분이다. <복수>(10-3, 241-254)에는 5년 공부를 마친 복수가 어미 앞에서 쓴 시가 게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朱熹의 <偶成>에 나오는 싯구 '未覺池塘春草夢 階前梧葉已秋聲'이다.

ⓒ는 5년을 공부하고 돌아온 아들이 어머니께 실망감을 안김으로써 이에 분발하여 더욱더 공부에 매진하는 계기가 된 한시이며, ⓓ는 용궁의 소년을 부르는 주문으로, ⓔ는 장재비라는 부자를 놀리는 도구로, 그리고 ⓕ는 죽은 남편과의 영혼적 교유를 노래로써 표출한 것이다.

ⓔ에서의 삽입가요는 12편에 이를 정도로 그 내용이 다양하다. 이 작품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한 편 한 편의 내용에 따라 사건이 점차 구체적으로 전개되면서 종다리와 양반 장재비의 갈등이 심화된다. 특히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면 악덕 주인인 장재비에 대한 원한이 저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그 노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절실하다.[36]

삽입가요가 제시되는 방식 또한 다양하다. 설화 구술자의 입을 통해 주인공의 소망을 발원하는 노래, 주변인물이나 아이들의 동요에 가탁된 노래, 한을 안고 죽은 인물이 새나 짐승으로 환생하여 부르는 노래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다양한 제시방식으로 인해 삽입가요는 이야기의 진행을 직접 주도하거나 장면전환 내지는 내면심리의 표출과 함께 감정의 장면을 구체화하는 등의 기능을 지니게 된다.

구술행위 도중 노래를 부르게 될 경우에 우선 구술자는 공정한 전달자로서의 객관적 거리 유지보다는 1인칭 화자로 그 자신이 노래의 내용이나 분위기에 도취되어 가창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구술자는 설화 현장의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고, 청자 역시 구술자와의 거리를 좁혀 모두가 하나되는 지적·정서적 공감대를 이루게 된다. 특히 삽입가요가 개인적인 정감을 노래하는 것이 아닌 집단 공유의 감정에 호소하는 노래일 경우 그 공감대는 더욱 확대된다.[37]

이처럼 중국 조선족 설화에 있어 가요의 삽입은 청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술자와 청자는 설화 현장에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설화 내용과 생활 현실의 거리를 보다 밀착시키기도 한다.

---

36) 보고보고 다시보니 / 양반어른 아니구나 / 돼지같은 장재비놈 / 인피를 쓴 짐승이네 / 짐승보다 못한놈 / 잡아서도 못먹네 / 갈기갈기 찢어서 / 매밥을랑 만들자

37) <종다리>에서의 삽입가요가 이의 대표적 사례이다.

Ⅳ. 구술전통과 이데올로기의 상관성

인간은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만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정치적 존재인 까닭에 각 개인의 경험인 동시에 공동체로서의 공동경험이 뒷받침된 나름의 사고방식이나 관념체계, 곧 이데올로기를 지니게 마련이다. 유사이래로 모든 이데올로기는 특정 시대의 필요와 열망에 따라 제기되고, 또는 다른 역사적 경험에 부응하여 대치되거나 수정되어 왔다.[38]

따라서 문학텍스트에 개입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총체적 개념의 이데올로기며, 문학텍스트 또한 단순히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나 표현이 아니라 자체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창조적 의의를 지니기도 한다. 전승과 변이를 특징으로 하는 구술전통에는 話者의 재능이나 聽者의 반응(feedback) 외에 이데올로기적 作爲性 또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 설화 역시 이주민으로서의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잘 반영하면서 구연이라고 하는 문학행위를 통하여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산출을 시도하고 있다. 곧 민족의식 앙양이라는 측면에서 본토의 설화를 전승하고, 동시에 공산주의 계급이념 선양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선별·첨삭과 함께 새로운 작품으로의 창작까지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우리 전래설화와의 대비를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임석재의 『韓國口傳說話』(평민사) 소재 설화[39]와 중국 조선족 설화 중 그 중심내용이 비슷한 것만을 가려 뽑아 대비하여 보면, 중국 조선족 설화에서 이데올로기적 개작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살필 수 있다. 이를 '지배-피지배 계급대립설화'와 '송사설화'를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

38) F. M. Watkins, The Age Of Ideology-Political Thought 1750 to The Present (이데올로기의 시대), 이홍구 역, 을유문화사, 1982. p. 19

39) 임석재 전집에 수록된 설화는 1917년에서 1960년대 사이에 채집한 것을 1987년에서 1993년에 걸쳐 평민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자료는 중국 조선족 설화 구술자와 비슷한 연배의 본토 거주 설화 구술자로부터 채록된 것임을 알 수 있기에, 양자의 비교는 본고의 의도와 부합되는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1. 계급대립 설화의 경우

계급대립의 양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중국 조선족 설화는 ⓐ <혹 떼러 갔다가 혹을 붙여 왔다>(11-1, 432-438)·ⓑ <천냥짜리 거짓말>(12-1, 31-36) 등이 있고[40], 이에 대비되는 우리 전래설화는 ⓒ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다>(6, 충청남도, 442-443)[41]·ⓓ <거짓말 세 마디>(1, 평안북도, 293) 등이 있다.

ⓐ와 ⓒ는 전형적인 模倣譚이다. 일반적으로 '모방담'은 보통 두 개의 揷話로 이루어지고, 삽화와 삽화 사이에는 반드시 探問의 과정이 개재되고 있다. 앞의 삽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우연히 행운을 얻기는 하나 주로 선행에 의한 하늘의 보답임에 비해, 뒷 삽화의 주인공은 욕심이 많고 성실성이 결여된 채 이를 갈취하려는 인물이다.

ⓐ와 ⓒ의 내용 역시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인공들의 신분과 결말 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변별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먼저 ⓒ의 경우 善人은 '마을의 한 사람'이고 모방자는 '욕심많은 이웃집 사람'임에 비하여, ⓐ에서는 선인은 '산골마을, 지주네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혹달린 영감'이고, 모방자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급인 '지주'이다. 평범한 이웃 관계를 ⓐ는 '지주-머슴'의 계급 대립적 관계로 치환하고 있다. 대등한 신분관계의 '이웃'과, 같은 집에서 사는 '지주-머슴'의 신분관계가 같은 거리를 유지할 수는 없다. 또한 결말 처리에 있어서도 '모방자가 혹을 하나 더 얻어 달았다'는 내용까지는 차이가 없으나, ⓐ의 경우 모방자는 '혹 두개 달고 지옥으로 갔다'는 내용으로 무연 확장되고 있다. 단지 혹을 하나 더 붙여 주는 하늘의 懲治에 만족하지 않고 '지옥'으로 보내고야 마는 것이다. 생존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이역만리를 헤매던 이주민들에게 있어서 '지주계급'은 탐욕 경계의 윤리적

40) 이 외에 계급 대립을 보이고 있는 중국 조선족 설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머슴과 부자>(6-1, 61-66)·<황통쟁이 부자놈>(7-1, 167-168)·<지주놈에게 된 매를 안기다>(2-1, 412-413)·<꿀강아지>(7-1, 147-149)·<거짓말쟁이와 욕심쟁이>(7-1, 211-216)·<은신초>(12-1, 20-26)·<숯쟁이 총각께 목떼운 사또>(6-1, 111-116)·<고약한 사또>(7-1, 142-147)·<개다리>(5-2, 294-302)·<황금몽>(9-1, 91-95) 등이 있다.

41) 이는 임석재 전집 6권, 평안북도 편, pp. 442-443에 있는 이야기임을 나타낸다.

교화 대상이기보다는 적극적 징벌이 가해져야만 하는 타도의 대상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와 ⓓ는 악인인 지배계급의 사람이 피지배계급의 사람들에게 소일거리로 거짓말을 하게 한 결과, 그 폐해가 자신에게로 되돌아 오는 소위 自繩自縛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두 설화는 그 뿌리가 서로 같으면서도 등장인물의 신분설정과 함께 결말의 처리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에서는 인물이 '어느 한 사람-부자 영감'인데 반해, ⓑ는 '젊은 머슴-주색에 빠졌던 옛 재상'으로 나타난다. 비록 정계에서 물러난 이라 해도 한 때 '재상'이었음을 고려하면 '관-민'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결말 처리에 있어서도 ⓓ는 선인의 승리와 함께 부자 영감이 기쁜 마음으로 돈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는 재상 영감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권세로 머슴을 누르려 한다. 이에 머슴이 '나는 賞을 내걸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으로 소일거리나 찾으려는 당신한테 한 번 톡톡히 경고를 주기 위해 찾아온 거요. 당신은 젊었을 때 적지 않은 사람을 해쳤고, 늙어서도 계속 사람을 우롱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덜 돼먹었단 말이요. 좀 성실해야겠소!'라며 침을 뱉고 재상집을 떠나버리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의 머슴은 가히 민중의 대변자이자 포악한 지배계급을 징치하는 응징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본토의 전래설화는 그 등장인물의 대립관계가 동등한 신분이거나 설사 다른 신분이라 할지라도 윤리적 '선-악'의 대립관계로 인물을 설정하고 있음에 반해, 중국 조선족 설화는 갈등을 안고 있는 '지주-머슴'의 계급적 대립관계로 인물을 설정하고 있다.[42] 그리고 그 결말의 처리에 있어서도 전자가 상호 공존과 화합을 추구하는 인과응보·권선징악과 같은 도덕·윤리의 교화

42) 이는 꽃이나 새이름과 관련된 전설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됫박 바꾸 주 하고 우는 새>(5, 경기도, 102-103)·<쪽박새>(3, 황해도, 250)·<쑥국새>(9, 전라남도, 37) 등 새이름과 <며느리꽃>(5, 경기도, 101-102)·<메눌치 나물꽃>(4, 강원도, 123) 등 꽃이름과 관련된 우리 전래설화의 경우, 모두 '심술쟁이 시어미-구박받다 죽은 며느리'의 관계로 고부의 갈등이 중심인데 비해, 중국 조선족 설화의 경우는 앞서의 <종다리>와 <진달래>에서 보듯 '포악한 지주-머슴'과 '무도한 왕-민중영웅'의 관계로 '지배-피지배'계급 갈등으로 나타난다.

적 입장에 서고 있는 반면, 후자는 매우 과격하고도 단호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징치하거나 회복불능의 상태로 처리하는 결말을 보인다.

결국, 우리 땅에 전래하고 있는 상하층의 대립설화가 유교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중국 조선족 설화는 봉건적 지배계급에 철저히 응징을 가하고자 하는 '피지배계급'의 저항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2. 송사설화의 경우

중국 조선족 구비설화 중에는 민중들 끼리의 사사로운 다툼이나 관과 백성 사이의 다툼 및 절도 살인 등의 반사회적 범죄행위가 송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되고 판관의 판결에 의해 해결에 이르는 일련의 작품군이 있다. 이처럼 송사사건의 시말을 작품의 구조원리로 하여 전개되는 일련의 설화를 필자는 '訟事說話'라 命名한 바 있다. 우리 전래설화에 나타나는 '송사설화'와 같이 조선족 '송사설화'에도 예리한 판결로 사건을 공정하고 현명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중들의 칭송을 받는 명판관에 얽힌 이야기와[43], 판관이 그릇된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배층의 무능과 부패, 타락상을 드러냄은 물론 이를 비판하는 이야기가[44] 공존한다.

중국 조선족 설화는 ⓐ <바보 사또>(4-1, 309-316)·ⓑ <소년 부사>(7-2, 1-7) 등이 있고, 우리 전래설화로는 ⓒ <미련한 원님>(6, 충청남도, 432-433)·ⓓ <어린 감사의 슬기>(1, 평안북도, 63-64) 등이 있다.

ⓐ와 ⓒ는 어리석고 못난 관장의 미련한 업무 수행에 얽힌 이야기이다. 등장인물에 있어 ⓒ는 '미련한 원-백성'이지만, ⓐ는 '매관매직으로 사또가 된

43) 이 유형에 드는 중국 조선족 설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양가죽을 심문하여 도적을 잡다>(10-2, 62-65)·<비단필을 헝클어 비단도적을 사출> (10-2, 99-101)·<다시 찾아낸 돈보따리>(10-2, 84-86)·<총명한 아이>(10-2, 38-40)·<살인자는 류삼공>(4-1, 206-210)·<사람도적을 잡은 이야기>(10-2, 86-91)

44) 이에 해당되는 작품으로는 <바보사또>(4-1, 309-316)·<소년부사>(7-2, 1-7)·<항아리와 양반>(7-1, 169-172)·<머슴꾼과 황제>(12-1, 37-39)·<그림 한 장>(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 8, 647-654)·<복수>(중국조선족민족문학선집 8, 655-666) 등을 들 수 있다.

시골부자-농사꾼'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미련한 것을 부각시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매관매직으로 사또가 될 수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러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결말처리에 있어서도 죽은 소 문제로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는 백성에게 미련한 사또는 마누라의 지혜를 빌어 소가죽은 장에 내 팔고, 고기는 이웃주민이 나누어 사도록 하여 현안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는 듯하다. 이어서 그는 아버지가 죽어 널을 장만하지 못한 백성의 하소연에도 '죽은 소'의 경우에서와 똑같이 해결해버리는 기민함(?)을 보인다.

이처럼 시종일관 어리석은 해결을 보임으로써 결말을 짓는 ⓒ와는 달리, ⓐ는 민란을 피하여 달아나는 사또의 모습과 함께 사기꾼에게 농사짓는 소를 잃어버리거나, 중국 燕京使節이 가져 온 안경이란 말을 듣고 알이 없는 안경과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희화적으로 그리고 있는 점이 다르다. 특히 말미에 '매관매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을 후세에 알리고자 한다'는 평결을 첨가 서술함으로써 부패로 물든 사회에 대한 비판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송사가 있을 때마다 '잘못된 송사판결은 민란을 부른다'는 사또 부인의 염려를 세 번이나 부각시킴으로써 이 설화의 개작 의도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곧 시비곡직을 올바르게 분별 못하는 부패·무능한 목민관은 더 이상 민중의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없으며, 신분의 위세를 업은 부패한 봉건체제는 '민란'으로 대변되는 민중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목민관에 대한 이야기 외에 민중영웅적 목민관상을 제시하는 설화들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와 ⓓ이다. 이 이야기는 자신을 깔보는 아전을 슬기로 제압하는 어린 목민관의 슬기를 보이는 것으로, 그 인물 설정에 있어 '15살의 평양감사-고을 좌수'(ⓓ), '9살난 동래부사 이두항-이방'(ⓑ)으로 신분상 차이는 없으나 결말 처리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곧 ⓓ에서 좌수는 소년감사의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나가던 중을 협박하여 바람에 날려간 모자를 찾아 주기를 감사에게 청하게 한다. 그러자 소년감사는 강 양쪽에서 바람을 받아 배를 움직이는 뱃사공에게 협의를 지워 무거운 굴갓을 만들고 바람에 날리지 않게 중의 머리에 못을 박게 한다. 이에 놀란 중이 자백함으로써

감사는 좌수를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다고 끝을 맺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이방이 '모자사건' 이전에 사람을 시켜 '잃어버린 매'를 찾게 하는 내용과 '모자사건'의 발각에도 불구하고 모해만 하려는 이방에게 수숫단을 보이지 않게 가져 오게 함으로써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내용들이 더 첨가되어 있다. 특히 말미에서는 백성들의 칭송과 신의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소년부사가 간신의 무고로 역적 누명을 쓰고 귀양가는 모습의 결말 처리방식을 보임으로써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최고통치자에 대한 비판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의 전래설화가 목민관의 슬기를 강조하는 데 있었다면 중국 조선족 설화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바른 목민관의 행위가 부패 무능한 통치자 내지는 지배체제에 의해 좌절당하는 상황까지 그려내고 있다. 이는 결국 봉건 통치체제의 한계를 더욱 극명히 제시하고, 민의에 의한 혁명으로 이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힘주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 전래설화는 봉건지배체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인과응보·권선징악과 같은 윤리적 교화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아왔다. 이와는 달리 중국 조선족의 설화는 인물설정과 결말처리에 있어 철저히 신분 계급과 결부시켜 부조리가 횡행하는 봉건적 지배체제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이를 응징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민란'이라는 무력에 의해서라도 이를 타도하고자 하는 적극적 저항 이데올로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Ⅴ. 마무리

중국 조선족은 移入民族으로서 주체민족인 漢族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을 떠받치고 있는 55개 소수민족 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높은 문화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개척한 그들 특유의 문화를 보존 전승시켜 오고 있다. 필자는 그들의 설화문학이 지닌 특징을 전통 지속과 변이의 관점에서 파악코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마무리에 갈음하고자 한다.

1. 중국 조선족 설화의 구술전통이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전개된 바탕에는 그들 특유의 이주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동향인을 중심으로 한 집단거주지의 선택과 망향의식, 빈번한 이주를 통한 구술내용의 상호교류와 함께 개변 및 창작 가능성, 그리고 강한 뿌리의식과 이야기꾼의 우대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2. 이주문화와 관련된 자연적 구술전통과 함께 계급이념을 지향한 기능적 구술전통도 존재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구연예술단의 조직과 조선족 구비문학의 채집·정리 및 이를 통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선양활동 등으로 가시화된다.

3. 중국 조선족 설화에서 필자는 자력해결의 서사구조, 극단적 대립관계의 설정, 그리고 대중친화적 흥미유발 장치와 같은 몇 가지 구술원리의 존재를 가정하고 이를 추론해 보았다.

3-1. 자력해결의 서사구조는 속담, 수수께끼의 활용을 통해 구체화된다. 원조자의 도움에 의한 환상적 사건해결 방식보다는 주인공의 속담이나 수수께끼 풀이 등 자기능력에 의한 해결을 통해 이야기의 현실적 리얼리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3-2. 극단적 대립관계의 인물설정은 기억의 용이성이라는 측면 외에 인물간의 상호 갈등을 첨예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주제의 심각성과 함께 이데올로기 지향성을 뚜렷이 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과격한 결말처리 방식 또한 풍류적 교화적 대응방식을 넘어 모순 부조리의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민중의지의 적극적 형상화라 하겠다.

3-3. 歌謠나 漢詩 등 삽입가요의 활용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청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장치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술자와 청자, 설화현장은 삼위일체를 이룬다. 나아가 삽입가요는 청자에게 있어 설화 내용과 현실과의 거리를 보다 밀착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이데올로기 선양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4. 중국 조선족 설화의 구술전통과 이데올로기의 상관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우리 본토의 전래설화가 봉건지배체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 인과응보·권선징악과 같은 윤리적 교화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음에 비해, 중국 조선족 설화는 인물설정과 결말처리를 계급차별의 현실과 결부시킴으로써 봉

건적 지배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아울러 '民亂'을 통해서라도 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적극적 저항 이데올로기를 담아내고 있다.

중국 조선족 설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필자는 우리 민족 설화의 범위와 영역이 세계로 확대되고 있음은 물론, 이와 아울러 설화의 전통 지속과 변이의 근저에 작용하는 이데올로기의 모습을 추론해 보았다. 앞으로 중국조선족 설화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접근과 심도깊은 연구를 기대하면서 필자 또한 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